재림과 까꿍놀이

(눅12:35-48)

35.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
38.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9.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재림과 까꿍 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대신에 너희가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그 천부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땅에 살면서 그 마음을 예수님 재림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문제를 아기들에게 우리가 '까꿍!' 하면서 하는 그 까꿍 놀이와 연관시켜서 한번 이해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까꿍 놀이!
엄마가 어떤 식으로든지 엄마의 얼굴을 가립니다.
아기의 머리에다가 보자기를 씌워서 가리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이 까꿍 놀이가.
근데 아주 흔한 까꿍 놀이는, 엄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손을 확 떼면서 엄마의 얼굴을 아기한테 드러내고 들이밀면서 '까꿍'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기들이, '까르륵~' 하고 웃습니다. 그게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재미있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지금 와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얼굴을 가렸다가 '까꿍' 하면은, 재미는커녕 이 사람이 벌써 이게 치매가 왔는가 하는 걱정을 해야 할 판인데, 아기들을 그렇게 재미있어 합니다.
그리고 벌써 유치원만 다녀도 '까꿍' 하면은, '누구를 애로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기들이 까꿍 놀이가 왜 이렇게 재미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기들의 인지발달과정을 연구하는 교육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상영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상이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능력입니다.
아기가 생후 5~6개월 되면서 조금씩 기기 시작할 때 구슬을 갖고 놀다가, 그 구슬이 굴러가지고 장롱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대상영속성의 능력을 획득하지 못한 아기일 경우에는, 구슬이 안 보이면 원래부터 그 구슬이라는 거는 없었던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도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놀던 구슬이 없어졌는데도, 하나도 아쉬운 게 없어서 찾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슬은 아예 마음에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8개월 지나면서 대상영속성이 마음에 생기게 되면, 구슬을 갖고 놀다가 책상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구슬을 찾아 들어갑니다, 책상 밑으로.
그래서 못 찾게 되면 '으앙~' 하고 웁니다.
왜냐 하면 마음에는 구슬이 보이고 있는데, 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구슬이 보고 싶어서, 그 구슬이 갖고 싶어서, 찾고 싶어서 울게 됩니다.
이게 대상영속성이 획득 된 거예요.

까꿍 놀이가 그렇게 재미있는 것은, 손으로 엄마가 얼굴을 가려서 얼굴이 안 보이게 되면, 몸은 그대로 붙어있는데 몸 위에 있던 얼굴이 그 얼굴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신기한 거죠.
그 없어진 얼굴이, 손을 딱 치우면서 다시 나타납니다.
이건 대상영속성을 획득하지 못한 아기에게는 기적이고 마술입니다.

그래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어? 없어졌네, 얼굴이, 어? 나타났네, 얼굴이.
이게 기억력이 아니라 이 인지 능력을 대상영속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대상영속성의 문제는 아기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추석 때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시골로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을 때 휴게소에서 파는 상품을 선물로 샀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때 그 물건을 사면서 돈 주고 받고 설명을 듣고 하던 그 점원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에서 대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동창, 잊고 살다가 길에서 만나면 기억을 해 냅니다.
군대동기, 대학동창 또 달라요.
이렇게 점점 나가다가 가족, 아내, 남편, 자식.
보이지 않아도 대상이 마음속에서 계속 지속됩니다.
설사, 아들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보이지 않아도, 늘 마음속에 아들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산 가게 점원은 마음에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올 때를 알았더라면,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대상영속성이 활동하지를 못합니다.
'어? 나는 만날 찾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대상영속성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먼저 그 부르는 이유가 뭐냐?
돈 벌게 해 달라고, 건강 지키게 해 달라고, 우리 자식, 우리 가정에 화목하게 하고, 만사가

다 형통하게 해 달라고…

이것에 대한 대상영속성 아닌가?

돈 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출세라든지 하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상들이 마음에서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그것들을 위한 방편으로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대상영속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까꿍 놀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마음에서 잊고 있다가, 맨~날 돈돈 하고, '사업, 사업!' 하고, '건강, 건강!' 하고, '가족들 형통, 형통!' 하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까꿍 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늘 기억하는 건 돈과 성공과 형통만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만나게 되면 까꿍 놀이가 되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바로 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도둑을 지키겠다고 사업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고, 밥도 안 지어먹고, 늘~ 도둑만 지킵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고?

요즘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내가 깨어 있는 것 대신에, 경보 시스템장치를 해 놓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경보 시스템인 것처럼 24시간 도둑을 위해 작동하며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신경 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경을 쓰다 보면 잊게 돼 있지요, 다른 일은.

근데 좀 더 깊이 따져보면,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깨어 있습니다.

유독, 주님에 대해서만은 깨어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도둑을 대비할 때, 24시간 도둑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구에게나 깨어있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에요.

여러분 연애 안 해 보셨어요?
연애하다가 추석 때가 되면, 장시간 못 만나는 거지요.
2~3일 동안 못 만난다는 게, 애인들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뭐 2년 3년 못 만나는 겁니다.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야 되니까, 전라도로 내려가고 나는 경상도를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전화합니다.
친척들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 녀석 너 많이 컸다, 멋있어 졌다, 그래 대학교는 뭐 재미있나, 뭐, 예 예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밥 먹습니다, 그리고 얼른 나갑니다.
마당에 나가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전화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받아요, 여자가 받다가 밥을 덜 먹었어요 '내가 조금 있다 전화할게 잠깐만 기다려!'
그럼 거기서 서성대면서 한적한 곳에서 기다리다 전화 받습니다.
그러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여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 보고 싶었어?' '응~ 보고 싶었지' '얼마나 보고 싶었어?' '하늘만큼 땅만큼 보고 싶었지'
나이가 지금 몇 인데 지금 대화가 그 모양입니까?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원래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보세요.
친척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여서 전부 성묘를 갑니다, 정말 일 년 중에 특별한 사건과 시간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신경 쓸 일이 많은 특별한 일들로 가득 찬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기억했느냐?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 얼마나 보고 싶었어?'
'흥, 뭐 보고나 싶었겠나, 아니 생각이나 났겠어? 먹느라고, 친척들하고 얘기하느라고 뭐… 엉? 내 생각이나 했겠어?' 이 마음.

이게 바로 지금 주님께서 재림을 대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음과 똑같다 이겁니다.
'내가 눈에 안 보일 때에, 마음으로 나를 얼마나 보고 있었느냐.'

‘보고 싶다, 그립다’라는 상황이 언제 발생하는 겁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손으로는 만질 수 없는데, 마음으로 보일 때 그리운 것이에요,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대비하는, 깨어있음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안 보이고 있는 동안에, 너희가 나를 얼마나 보고 싶었어? 뭐 보고 싶어나 했겠어? 사업 하느라고 바빠서, 자식 키우느라고 바빠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게 관심이 있었지.’
‘하늘에서 있으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형통할 때 필요하고, 건강할 때 필요하고, 돈 벌 때 필요한 능력만 보내주면 되는 거였지, 나는 보고 싶었겠어?’ 하는 이 애인의 마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애인의 마음상태를 지금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얼마나 보고 싶었어? 눈에 안 보인다고 마음에서도 잊은 거냐? 대상영속성이 획득되지 않은 아기의 상태처럼, 내가 안 보인다고 없는 거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청지기 얘기를 하시면서, 주인이 먼 곳에 가서 자리를 비웠을 때에, 그 집안사람들을 잘~ 돌보고, 집안에 있는 종들을 잘~ 거느리는 그런 청지기가 누가 있겠느냐.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청기기가 왜 주인이 없는데도 잘~ 집안을 보살핍니까?
마음으로 주인을 보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인이, 주인이 없는 공간에서도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보는 첫 번째 대상이.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마는, 그 주인이 첫 번째 대상이 될 때에, 이 청지기는 마치 주인이 눈앞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청지기의 본분을 다 한다 이겁니다.
이게 청지기라고 얘기하니까 의무, 마땅히 해야 될 일, 충성 뭐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데이트하는 남녀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마음가짐이.
까꿍 놀이가 아니라, 데이트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만나지 않고 있고, 애인이 없는 공간 안입니다.
그러나 왜 화장을 하고, 화장을 하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지금 애인이 내가 거울에 비쳐지는 게 아니라, 거울 속에서 애인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

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는 겁니다.
애인이 나를 척 봤을 때 '야! 예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애인을 보고 있으니까.
청지기의 마음을, 청지기라고 공무집행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보지 말고, 데이트하는 관계로 봐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대상영속성의 대상이 못 되고 있기 때문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잊혀 진 것이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깨어있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업가는 이윤에 깨어있는 겁니다. 늘 어떻게 하면 흑자로 경영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깨어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까지 잊어버립니다, 자식까지 잊어버리면서 사업경영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면 반드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속물이 따르나 하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잠자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해서 깨어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어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이고, 그 깨어있는 그것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보고 있고 다른 것에 대해 깨어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재림이라는 계획, 재림이라는 프로젝트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상영속성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 그래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만져지지는 않으니까, 그리워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라 이겁니다.
재림은 어차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할 수 있는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림얘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재림이라는 프로젝트를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재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고 있으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깨어있느냐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돈에 대해 깨어 있으면서 추석 명절 지나고 만날 사람 다 만납니다.
돈과 관계없는 동창도 만나고, 할 일 다 합니다.
애인에 대해 깨어 있으면서 추석 연휴 다 지냅니다.
그 복잡하고 신경 써야 될, 사람이 와글와글 시끌벅적 모여 있는,그 모든 시간을 다 관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만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서 직장생활 못합니까?
왜 예수님께 깨어 있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못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 거짓말이라는 얘기에요.
세상에서는 한 가지에 깨어 있으면서 다른 모든 걸 하면서, 왜 예수님께 깨어 있으면 다른 모든 걸 못 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대상영속성을 획득한 아이가 구슬이 장롱에 들어갔을 때, 장롱 밑을 손을 휘집다 안 되면 우는, 장애물을 치우면서 마음에서 보고 있는 거를 손으로 쥐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으로 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대해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돈 벌게 해 주세요 예수님, 하는 건 예수님께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돈에 대해 깨어 있는 거지.
'건강 주세요, 예수님' 하는 건 예수님께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 대해 깨어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 자신에 깨어 있는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주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로 하여금 자꾸 내 마음이 깨어 있도록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배우자이면 배우자에 대해 죽어야 되고, 그것이 사업이면 사업에 대해 죽어야 되고, 그것이 건강이면 건강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깨워서 내 마음을 집중 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천국에 계신 그 주님과 그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을 수가 없고, 대상영속성을 유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상황들에 내 마음이 빨려 들어가 버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은 잊혀 져 버리고 맙니다.
단지, 내가 빨려 들어가서 깨어 있는 이 세상의 일을 잘 이루어 가기 위하여, 그것에 대해서 깨어, 세상에 대해 깨어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 있는 상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깨어 있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모든 신경을 빼앗아 가려는 일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돌립니다.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동안 마음에 하늘이 보입니다.
보좌가 보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보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보이는 그 상태로,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재림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언제 올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재림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이유는, 머나먼 언젠가 미래에 올 재림의 문제를 우리에게 부각 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예수님에게 깨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대상영속성이 마음속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라는 이야기이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내 마음에 사랑을 빼앗아 가려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 하루, 그 동안 내가 돈에 대해 깨어있으면서 돈과 관계없는 일까지도 다 한 것처럼, 애인에 대해 깨어 있으면서 애인과 관계없는 모든 일을 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애인관계로 예수님에 대해 깨어 있으면서,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